# 연중 제6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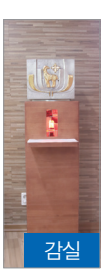
청주주보
| 제2210호 | 2020년 2월 16일
발행 | 천주교 청주교구 전산홍보실 | (28337) 청주우체국 사서함 10 | 전화 | 043-210-1760 | 전자우편 | weeknews@hanmail.net | www.cdcj.or.kr

## 하느님을 찾아가는 우리교구 신앙여정

## 83 가톨릭청소년센터

사진 촬영 _ 청주교구 가톨릭사진가회
가톨릭청소년센터

경당


감실

십자가

제대

강의실

카페 유벤투스

| | |
|---|---|
| 제 1 독 서 | 집회 15,15-20 |
|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 제 2 독 서 | 1코린 2,6-10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br>○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br>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복 음 | 마태 5,17-37 |
| 영 성 체 송 |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br>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 제3차 넷째 해)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맞이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말씀 중심의 삶

#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주영일
필립보 신부
내수 본당

찬미 예수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교우 여러분과 가정에 필요한 은총과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데, 막상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지키기 힘든 율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율법 때문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부딪히는 일이 잦았고, 이는 그들의 미움을 사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시 사람들 중에는 율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가장 작은 계명 하나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더군다나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말이나 생각처럼 더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언뜻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더욱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또는 '십계명'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그 글자만으로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실제로 죄는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가르치시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는 감옥이나 판단의 잣대가 아니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견고한 울타리'도 스스로 그것을 넘는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과 근본정신을 이해하고, 율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쁘게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의 보호 안에 머무는 지혜롭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20).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 청주성모병원 종합건강검진 특별감면 실시

청주성모병원 알림

기본검진 금액 (남) 39만원, (여) 43만원+추가선택 검사 ⇒ **총금액 30% 감면**
감면 기간 _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문의 _ 219-8666, 8777〉

# 선교, 사랑을 나누는 것

제가 청년선교사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기도 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부모님도 흔쾌히 다녀오라고 말씀해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보다는 봉사한다는 생각,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정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면서 그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에게 얻어오는 선교체험을 더 가고 싶어졌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조금 힘들었지만, 함께하면서 점점 좋은 계획이 세워져서 좋았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현지 커럭카 성당에서 마을 아이들을 모아 축제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함께 놀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가 미리 와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밝게 웃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축제 이후에는 오전에는 가정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소규모의 놀이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가정방문을 가면 항상 캄보디아 사람들은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어떤 집에 도착했을 때 7살도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가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저희를 위해 선풍기를 틀어주는 배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웃음은 정말 예뻤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았던 제가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선교사체험을 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 그런 것은 나와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선교체험을 통해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널리 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영현 엘리사벳
서원대학교

## 메리놀회를 위한 기도의 날(2월 16일)

청주교구는 초대교구장 메리놀회 파디 야고보 주교의 선종일인 2월 16일을 '메리놀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선교 사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은 백년 대계"
베네딕토 16세 교황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학습과 실천

### ⓬ 사랑의 결정적인 두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정화해 가며 이제 결정적인 사랑이 되고자 합니다. 결정적인 사랑이란 두 가지 의미, 곧 (오로지 이 사람뿐이라는) 배타의 의미와 '영원'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은 시간을 비롯한 온 삶을 그러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약속은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곧 사랑은 영원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참으로 '황홀경'입니다. 도취 순간의 황홀경이 아니라, 자기만을 찾는 닫힌 자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자기를 줌으로써 자아를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참으로 하느님을 발견하는 여정인 황홀경입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6항).

이것 좀 배워봅시다

기초다지기 53

# 내게서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시편66,20]

신성근 야고보 신부 / 사천동 성당 주임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은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완성된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첫 인간의 죄로 하느님과 멀어졌던 우리 사람을 메시아 곧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역사이다.** 사람에 대한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하고 가난하며 병들고 천대받는 이들, 즉 소외된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 본질상 조건 없는 사랑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보여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의무를 당연히 지게 된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요한 13,34-35; 1요한 4,9-10 참조).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5)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자리하기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하느님께 향하는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도 나타나야 한다. 즉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요한 13,34-35 참조). 사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인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오직 하느님에게서 오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가 사랑에 있음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마태 22,37-39).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한다.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계명을 주심과 동시에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굳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며, 우리에게서 당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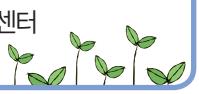
신성근 신부님이 집필하시는 시편해설이 교구 홈페이지(www.cdcj.or.kr)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전산홍보실 -


## 제27기 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1년)

연한 _ 3-11월.매주 목.10:00-16:00
대상 _ 본당신부 추천인, 교구 내 수도회 수도자/수련자
등록금 _ 35만원(본인 15만원)
접수 _ 2.28까지 210-1732 선교사목국

## 제10기 청주 생명학교 모집

개강 미사 _ 3.18.수.19:30 교구청
대상 _ 성과 생명교육에 관심있는 남녀
등록금 _ 14만원(본인 7만원)
접수 _ 2.21까지 1577-3053 새생명지원센터



차쿠 뜨락 24

# 자존심, 자존감

이태종 요한 신부 / 중국 차쿠사적지

속담이랄지 격언이랄지 무릇 "병病은 알리라."는 말이 있다. 그래야 약이 먼 데서도 듣고 처방하러 오지 않겠느냐는 선조들의 지혜이다. 어제 중국 우한의 당서기 마궈창은 급기야 이번 신종 폐렴 발병을 제 때에 알리지 않았다며 자책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소리는 사실 예견되었다.

과거에 나 역시 병을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 팔팔 쌩쌩 괄괄하던 아직은 삼십 대 일 때,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에 갔더니 故 최헌식 박사는 껄껄 웃기만 했다. 십자인대가 끊어져 오그라들려면 몇 년은 아팠을 텐데, 이 곰탱이야 병만 키웠냐? 라고 질책하는 웃음 같았다. 당시 몸 담고 있는 본당에는 휴가만 간다고 했다. 수술과 물리치료까지 마치고 복귀했을 때도 일언반구를 하지 않았다. 수술한 자리의 통증이 남았는데도 안 아픈 척하느라고 참말로 고생도 생고생! 지 신세를 지가 달달 볶았다.

모 일간지의 베이징 총국장 유상철 씨도 언급했지만 예부터 중국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기쁜 일은 알리고, 근심은 보고하지 않는(報喜不報憂)' 관료주의가 성행했다. 하기야 대륙 각지의 걱정을 다 챙긴다는 게 어렵기도 했을 거다. 그런데 이 관행이 민간에까지 퍼져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 "니하오?(좋으시지요?"라고 인사하면 열의 아홉은 "하이하오! 還好!(아직 좋아요!)"라고 화답한다. 이게 아주 인사법이 되었다. 보기에는 다 죽게 생겼는데도 여전히 입버릇처럼 還好라고 한다.

서른의 아홉수였던 그 시절, 나는 왜 병을 알리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강해 보이려고 그랬다. 약점을 내 보이기가 싫었다. 누군가 내 병을 가지고 쑥덕거리며 입방아 찧을 걸 생각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다. 아,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내 교만의 절정기였다. 그러면 중국은 왜 바로 병을 알리지 않았을까?(차쿠 같은 데서는 우한 소식을 한국 뉴스를 보고야 알았으니) 이 역시 강한 국가이고 싶어서 그랬을 거다. 중국 세간에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는 표현이 하나 있다. 接地氣兒 : (식물이) '흙냄새를 맡았다.'라고 하면 그의 정치가 백성들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칭찬이 된다. 반대로 高高在上 : 붕붕 떠 있다. 라고 하면 조롱하는 말투가 된다. 가뜩이나 중앙의 '정책'에 대해 지방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대책'이 만연해 있는데, 작년은 특히 건국 70주년 되는 해가 아니었던가. 깃발들이 높게 붕붕 날린 만큼, 구호들이 강하고 또 강하게 외쳐진 만큼 상대적으로 실생활이라는 땅에 뿌리내리진 못했으리라. 이건 중국에 5년 산 사람이라면 그냥 체득할 수 있는 2019년 한해의 분위기였다. 나날이 향상되고 세련되어 가는 백성의 의식수준에 맞춰 뿌리내리지 못한 70주년 전시행정이, 그의 연말에,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는 적을 딱 만난 것이다.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출몰을! 그러니 초전부터 고전을 면치 못함은 예견된 일이다.

마침 비자의 기한이 차서 귀국하였고, 주님 봉헌 축일 미사를 드리면서 나는 중국에 대한 첫 마음을 재차 봉헌할 수밖에 없었다.(어차피 이런저런 리스크를 염두에 두었던 당초 중국행이 아니었던가, 하고…)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위중해 보인다. 혼자 드리는 미사라서 보편 지향 기도는 자연스럽게 중국 쪽으로 향해진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에서는 지금 굳게 막혀버린 성당 안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신부들, 중국교회가 생각났다. 두 번째, '위정자를 위하여'에서는 별의별 욕심이 다 났다. "보도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보도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다수의 여론 앞에, 중국의 위정자들도 투명하게 병을 알렸으면 좋겠다. 또 군인들이 아무리 길을 막고 대문을 막아봐도 인력으로는 힘든 일이라며 허리를 굽혀, 백성들의 진심을 구해보면 어떨까? 이 참에 인간의 힘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그 하늘' 대전에 두 손 모으고 같이 무릎 꿇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비록 자존심은 떨어뜨릴지언정 자기 신세 자기가 볶는 데서 오는 무게는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세 번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에서는 봉쇄된 도시에, 건물 안에, 확진의 공포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를 위해'에서는 느닷없이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2장 9절이 생각났다.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라고 하신 바오로 사도, 대체 사도의 자존감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기에 병을 알리고, 약점을 자랑하고,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려도, 푸릇푸릇 싹처럼 돋아나고야 마는 자존감이런가?

차쿠.COM

## 교구장 동정

■ 신봉동 성당 견진
일시 _ 2월 19일(수) 저녁 7시 30분

■ 미원 성당 교육관 축복식
일시 _ 2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 교구 소식

### 선교사목국

**레지아 간부직책교육(부단장)**
일시 _ 2.22.토.09:00
장소 _ 교구청

**제5기 가톨릭 여성 문화교실**
일시 _ 3.9-6.1.매주 월.14:00-16:00
장소 _ 교구청. 마감 _ 3.1(선착순 모집)
과목 _ 캘리그라피(초급반)/공예교실
인원 _ 교구 여성신자(예비신자) 과목별 20명
문의 _ 010-4156-7027 ※문자로 접수

**한글학교 학생 모집(비신자 가능)**
개강 _ 3.2.월.10: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32, 010-5461-9573

**경찰사목 선교사(예비신자교리 · 미사봉사) 모집**
대상 _ 선교학교 · 교리신학원 수료자 10명 내외
문의 _ 010-9700-3273 경찰사목 담당 신부

### 가정사목국

**청주 생명수호미사**
일시 _ 2.17.월.19:30
장소 _ 수동 성당

**부모와 함께 하는 영유아교육 '천사학교'**
개강 _ 2.22.토.10:30-12:00(4주간)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천사학교 봉사자 모집**
대상 _ 유아음악 · 체육 전공, 유아문화센터 강의가능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제32회 청주어르신대학 신입생 모집**
대상 _ 60세 이상 어르신
수업 _ 매주 화.14:00-16:00 가톨릭청소년센터
수강료 _ 연 5만원(월 회비 5천원 별도)
입학미사 _ 3.3.화.14:00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33 가정사목국

### 청소년사목국

**신임교리교사학교 기초**
일시 _ 2.21.금-23.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

**가대청연 일꾼수련회**
일시 _ 2.22.토-23.주일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청년성서모임 상반기 그룹원 모집**
과정 _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_ 220-1707 청소년사목국

**청년성서모임 상반기 말씀의 봉사자 교육**
일시 _ 3.7.토.13: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회비 _ 5천원
내용 _ 신약입문, 그룹봉사자 안내
문의 _ 220-1707 청소년사목국

### 사회복지국

**모퉁잇돌 상담사(사회복지사) 모집**
자격 _ 성폭력상담원교육과정 이수자
문의 _ 010-9604-2009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어르신 모집**
대상 _ 장기요양 3-5등급
내용 _ 24시간 일상서비스, 치매맞춤형 프로그램
문의 _ 264-0900(송절로 124번길 9)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모집

**충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입소 어르신 모집**
대상 _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
문의 _ 852-1717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련 청주교구 대책

1. 본당 미사와 단체 등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2. 미사 중 '평화의 인사'에서 악수,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을 피한다.
3. 본당과 기관 및 단체에서는 공용 손 소독기 혹은 기타 소독 약품을 비치한다.
4. 본당과 기관 및 단체의 내 · 외부에서 예정된 대형행사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거나 보류할 것을 권고한다.
5. 성당 입구에 비치된 성수대는 당분간 폐쇄한다.
6. 정부에서 제공하는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교육한다.


**충주 오라클 피부과**
여드름, 모공, 흉터, 색소, 기미, 잡티
일반피부질환, 건선, 백반증(엑시머)
피부과 전문의 윤정현(루카) | 845-6640~1 충주 터미널 맞은편 황금빌딩4층

**참좋은 수제 돈까스**
수제돈까스 · 함박스테이크, 정식(모든 식재료 국내산)
각종 모임 및 배달 환영(요기요 참조, 음료수 서비스)
전중현 베드로 황수옥 마르타 | 213-3334 율량동 홈플러스 옆

**정(靖)통합발달센터(지역사회투자서비스 제공기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비전형성서비스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정숙경 아가다 (영유아 발달지원) | 224-8288

**청소 | 소독 | 방역 | 가나클린**
준공. 카페트. 쇼파. 왁스코팅. 주방기름때. 공장. 외벽청소 등
1급 위해생물방제사 자격업체. 바퀴벌레등 해충박멸. 쥐퇴치
대표 안광준 프란치스코 | 1522-9058 272-0988

**참조은 정형외과 의원**
관절, 척추, 통증, 척추교정재활크리닉
도수, 체외충격파 치료 및 물리치료
소창성 비오 권현숙 비아 | 213-0080~1 (fax 213-0016)

**중고차 친절상담(당일 현금 지급)**
중고차매입상담 · 출장매입(견적), 법인차량매입
전액할부 판매, 대차 · 폐차 문의
권용만 요한 동부자동차매매상사 | 010-5466-7560

**가톨릭신자 맞춤형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 모집**
대상 _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내용 _ 복음을 활용한 인지향상 프로그램, 미사 등
문의 _ 222-9633 영운카리타스소규모노인종합센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안내데스크 봉사자 모집**
대상 _ 만 50-70세 미만 미취업자
자격 _ 사회복지사, 상담사, 컴퓨터일반사무 자격증보유
내용 _ 09:00-14:00 티켓발권, 이용상담
문의 _ 255-2144-5

## 성소국

**예신 입학미사 연기 안내**
※2월 16일(주일)로 예정된 예신입학미사는 3월 15일(주일)로 연기합니다.

## 교구 내 본당

**주덕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_ 세례 5년 이상 사무행정, 컴퓨터 활용, 회계업무 가능자, 운전면허 소지자
서류 _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_ 010-9427-4588

**삼성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_ 세례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이 컴퓨터 사용가능, 1종보통운전면허소지
서류 _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_ 878-5609

## 교구 내 기관 · 단체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충주지구 대피정**
일시 _ 2.18.화.10:00-14:00
장소 _ 지현동 성당 ※연합 쎌
강사 _ 박상운 토마스 신부(전주교구)
문의 _ 010-4153-4383

**빈첸시오회 간병사 미사**
일시 _ 2.18.화.10:30
장소 _ 청주성모병원 성당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수요치유기도회**
일시 _ 2.19.수.10:30-16:00
장소 _ 초정 성령쇄신봉사회관
문의 _ 213-910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월피정**
일시 _ 2.20.목.10:00-15:00
장소 _ 서운동 성당
강사 _ 오상환 요셉 신부(꼰벤뚜알프란치스코형제회)

**한반도 평화와 북한 교회를 위한 기원미사**
일시 _ 2.20.목.19:30
장소 _ 수동 성당
문의 _ 010-9872-1037

**충주 재속가르멜회 월모임**
일시 _ 2.23.주일.10:00
장소 _ 충주가르멜수녀원

**재속프란치스코회 괴산 루케치오 형제회**
일시 _ 2.23.주일.14:00
장소 _ 괴산 성당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충주 일일대피정**
일시 _ 2.24.월.10:00-16:00
장소 _ 충주가톨릭회관
문의 _ 010-9024-4556

**윤병훈 신부와 함께 하는 놀이 · 체험 · 인성프로그램 정규반 모집**
대상 _ 초등 5학년-고등 3학년 총 40명
기간 _ 주1회(평일, 주말)/1년 과정
문의 _ 296-5004, 010-9406-0711
※ www.nolchain.com 참조

**성심노인요양원 간호사 · 요양보호사, 조리원 모집**
문의 _ 214-8501 ※09:00-18:00 근무

## 교구 외 기관 · 단체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일시 _ 2.27-29, 3.5-8, 3.11-13, 3.17-19, 3.23-26, 3.29-31
내용 _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_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_ 064-796-9181

**송봉모 신부의 1박 2일 피정**
일시 _ 3.14.토.16:00-15.주일.14:00
장소 _ 정하상 교육회관
주제 _ 일상도의 삶
회비 _ 1인 8만원
문의 _ 044-863-5690, 010-8848-5690

**마리스타 별수아 피정의 집**
대상 _ 개인, 가족, 청소년, 소규모 단체 등
주소 _ 제천시 백운면 구학산로 1181
문의 _ 651-8356

## 수도회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일시 _ 한라산 2.22-24/추자도 3.4-7, 3.9-12, 3.14-17, 3.19-22, 4.2-5
운영 _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내용 _ 수사들과 제주성지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래킹
접수 _ 02-773-1463, 064-756-6009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_ 3-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_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_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문의 _ 02-828-3600, www.donbosco.ac.kr
※취업 _ 최근 5년평균 취업률 93.3%

## 2020년 상반기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 지 구 | 일 시 | 장소(본당) |
|---|---|---|
| 강서 | 2.18.화 | 복대동 |
| 흥덕 | 2.19.수 | 성모성심 |

• 시간 _ 09:30-12:00
• 문의 _ 210-1732 선교사목국


청주주보 상업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Fax : 273-5003, dewmok@hanmail.net 성경필사용지 제작 · 판매

**고추 소 · 도매 병진상회**
고추전문점/고추가루(신자할인 가능)
사천동 농수산물 고추도매시장 24호
대표 조병진 요셉 이연심 사라 | 010-3150-8971

**나을 한의원**
자동차보험, 통증, 관절, 한방내과
수곡동 두꺼비 시장 사거리 T월드 2층
조수영 안토니오 아빠스 | 298-1075

**가톨릭 여행사**
4/2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원
4/20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15만원
상담 문의 | 010-5235-3533

**제주도 관광**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에서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064-758-6476, 010-4566-6476

**현대씽크 충주공장**
부엌가구, 붙박이장, 수납장, 신발장, 교구장
맞춤형 가구제작전문(충주 KBS방송국 뒤)
송영만 바오로 황영의 수산나 | 844-9494 010-4506-9493

**김장젓갈 전문 · 강경 늘봄젓갈**
총구역,성모회,소공동체 기금마련 상담환영
각종 새우젓, 액젓, 갈치액젓, 양념젓갈
대표 김형근 루카 010-7722-7711 | 신안탈수소금 만오천원 택배 오천원별도 7년산 12년산 있음